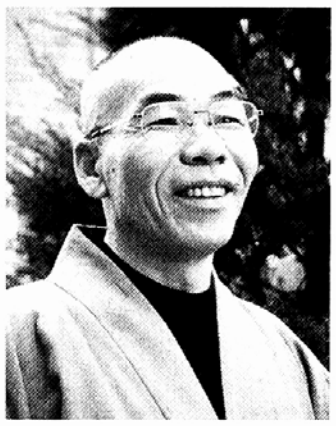
차암련 회장에 듣는다

"사회 · 환경방생 펴겠다"

수원불교연합 성관스님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수원을 연꽃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지난해 선을 보인 '우리 꽃 심기' 생태방생을 더욱 확산시켜 아름다운 수원을 만들고 불교의 생명사상을 자연스럽게 포교할 생각입니다."

수원시불교연합회 회장 성관(용화정사 주지) 스님은 지난해에 이어 '월드컵 성공기원 연꽃심기' 등 생명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2회 생명해방의 대축제를 준비하는 등 불교의 생명사상을 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축제는 3월 중순경 만석공원 저수지에 연꽃을 심는 한편 연꽃이 개화하는 시점에 연꽃그림 및

재소자 등 불우이웃 돕기

수원 연꽃도시로 가꿀터

사진 전시회, 환경장터, 연꽃관련 전통음식 시연회, 문화공연 등을 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수원환경운동센터와 공동으로 광교산일대에서 '광교산 보전을 위한 토종 야생화 심기 생태방생'을 실시해 새로운 불교환경운동의 가능성을 보인 스님은 "방생은 이제 기존의 물고기 방생을 넘어 생명의 존엄성을 깨우치는 사회적 · 생태적 방생으로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달 또는 분기별로 수원구치소 위문법회,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노인 돕기 등의 인간방생을 실천해 온 스님은 올해 '정보화 나눔운동'과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불련 경기지부 회원과 청년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 사찰별 무료 집단교육 및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정보화 나눔운동은 지역의 불자와 시민들에게 인터넷 활용방법을 교육시켜 포교는 물론 불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연합캠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청소년 불자들을 양성하고 지역불교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농대교수불자회, 수원시약사 · 교사불자회, 경기도청 불자회 등 신행단체들을 비롯 시민 · 환경단체들과 '환경-역사-생명의 문화도시를 위한 아름다운 수원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 스님은 수원시청불자회를 재조직해 하반기에 수원신행단체연합회도 구성할 생각이다.

성관스님은 "86년 창립이후 51개의 회원 사찰이 함께 하는 수원불교연합회는 100만여명의 수원 시민을 불교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해 종교계의 환경 · 통일 ·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 · 실천사업으로 통일한마당, 환경한마당을 펼치겠다"며, "3월 29일 국운회복과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연합 생태방생법회를 시작으로 봉축행사를 지역 문화축제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아웅산 참사지에 위령탑

한국미얀마 불교진흥회

한국미얀마불교호법진흥회(회장 영월)는 17일 오후 12시 미얀마 양곤 인야칸페야 사원에서 한국미얀마 불교수교기념 및 아웅산 한국 외교사절단 추모위령탑 제막식을 갖는다.

미얀마 종교성이 기증한 2천여평의 부지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모위령탑을 세워 아웅산 참사로 희생된 순국영령을 추모한 영월스님은 지난해 미얀마 정부의 부지 기증으로 양곤에 미얀마 조계사를 개원했으며, 한국미얀마불교회관 건립도 발원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17일 제막되는 추모 위령탑.

대보름 불서 · 백미 보시 '참방생'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정월 대보름을 맞아 방생법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계스님)이 이웃과 함께하는 '참 방생'을 실천해 미담이 되고 있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회장 김우룡)는 7일 대보름법회를 마친 후 지역 사회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230여 가구를 조별로 직접 방문해 쌀 20㎏과 불서('삶은 고기 아니다'), 큰스님 법문 테이프를 전달했다.<사진>

이 같은 '인간 방생'은 신도회가 지난해부터 '진리를 구하는 이에게는 법을, 쌀이 필요한 곳에는 생명의 곡식을 보내자'며 전개해 온 '함께 갑시다'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것. 신도회는 지난해부터 자체기금을 마련, 불서 5천여권과 법문 테이프 1만여개를 불자와 시민들에게 무료로 보시해 왔다. 김재경 기자

인각사 가야고분서 천도재

27일 조사전 상량식도

경북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는 20일 오전 10시 경북 고령 가야고분 현장에서 고령군의 가야고분 박물관 기공식을 기념, 위령천도재를 거행한다.

가야고분 762기에 묻혀 있던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거행되는 이 천도재는 비디오로 상영돼 박물관에 영구 보존된다. 사찰에서 고분에 모셔진 영혼들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인각사는 27일 오전 11시 조사전(대웅전) 상량식을 갖는다. 6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되는 조사전은 인각사 종합정비계획 불사의 하나다. 김재경 기자

기림사 화정당 상량문 발견

4월 판독…건립 시기 주목

경북 경주시 기림사(주지 종광)의 요사채인 화정당(和井堂) 해체수리 중 상량문이 발견돼 전각 조성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로 17.5cm · 세로 6cm, 두께는 7mm의 한지로 조성된 이 상량문은 발견당시 중앙칸의 종도리에 접혀 있어 보존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12일 지류보존처리 전문가인 박지선 교수(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장)에게 의뢰하여 일정기간의 보존처리 기간을 거쳐 4월초 정확한 내용을 판독하게 된다.

기림사에서 가장 오래된 대적광전(보물 833호)은 제5차 중수인 인조 7년(1629)의 전각. 4월에 화정당의 상량문이 판독되면 이보다 앞선 건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발견의 의미가 적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최기범 경주지사장

종단소식

조계종

범어사 장학금 전달

조계종 14교구 본사 범어사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0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12월 자비실천 하루찻집 수익금으로 조은경(동의대 동양언문학과) 하도형(중앙대학 경제학과) 등 12명에게 1천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교육개선 지침전달

교육원(원장 일면)은 8일 조계종 각 교구본사와 본 · 말사에 수행과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종무지침을 시달했다. 교육원은 종무지침에서 전문 ·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승가대학이 없는 교구에는 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1개소 이상의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하고 또 재교육을 위해 종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재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종단교육계획에 의해 교육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교육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감사국장 법용스님 임명

총무원 감사국장에 법용스님이 임명돼 1월 29일 임명장을 받았다. 법용스님은 1957년生으로 73년 수덕사에서 혜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99년 직지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73년 수덕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6하안거를 성만했으며 수덕사 교무 · 총무 국장, 용봉사 · 서광사 주지를 역임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 H · P개설

제주교구지방종회(종회의장 청운)는 지난달 16일 정기 지방종회를 열고 제주종무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종무행정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제주불교총람 태고종편 발간 △상조회 결성 △결식아동을 위한 생미공양운동 전개 등 올해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 1억5천2백55만2천만원을 통과시켰다.

천태종

사무처장 송재스님

학교법인 금강학원 사무처장에 송재스님이 임명됐다. 이로써 금강학원 사무처는 총무원 교육부에서 완전 분리되어 대학재단 사무처가 독자적으로 금강대학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송재스님은 성문사 삼개사 삼태사 주지를 거쳐 현재 서울 명락사 주지를 맡고 있다.

진각종

15일 열반절 기념불사

부처님 열반절(진각종은 양력으로 함)을 맞아 서울의 탑주심인당을 비롯 전국 각 심인당은 15일 오전 10시 열반절 기념 불사를 봉행하여 진정한 열반의 뜻을 새기고 불국토건설을 위한 용맹정진을 다짐한다.

원정각 대종사 7주기

서울 밀각심인당(주교 회정)은 25일 오후 2시 원정각대종사 열반7주기를 맞아 추모불사 및 다례공양을 올린다. (02)2292-8730

법륜종

의식교육원 개원

20일 오전 11시 공주시 신(新)터미널 빌딩 3층에 불교의식교육원을 개원한다. 종단 차원에서 운영되는 의식교육원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상단예불, 각단예불, 불공시식 등 불교의식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02)733-4445

'베푸는 불교'로 도심포교 성공

광운정사 10돌 맞아 수계 · 공연

도심포교당인 서울 은평구 광운정사(주지 청운 · 사진)가 개원 10주년을 맞아 3월 1일 오후 2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보살계수계식 및 축하 국악공연을 개최한다.

1991년 불자교육의 기치를 내걸고 은평구에 개원한 도심포교당 광운정사는 95년 광운불교대학을 개설하여 6년간 총 500여명의 수련생을 배출했으며, 99년에는 인천에 불교대학을 설립하는 등 불교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교육과 베푸는 불교' '생활불교 실천'을 모토로 사찰운영위원회를 가동해 신도들에게는 기도비와 인등비를 받지 않고 가족 모두의 등을 켤 수 있도록 했으며 알뜰재정으로 복지기금 2억원도 조성했다. 광운정사는 이 기금을 이용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군부대 위문행사와 보육원 방문, 소년소녀가장돕기, 결식아동돕기 등의 보시행을 전개하고 있다. (02)389-8966

김원우 기자

성철 기념관 내달 개원

3천여평 부지…유물전시

성철스님문도회는 산청군의 지원 등 5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성면 묵곡리 생가 일대 1만2천여㎡의 부지에 성철스님 기념관 등을 3년만에 완공, 3월 30일 개관한다.

기념관은 한옥 형태의 안채 · 사랑채와 포영각(泡影閣) · 전시관 등으로 꾸며지는데 특히 전시관에는 성철스님이 생전에 사용했던 누더기 두루마기를 비롯, 고무신 덧버선 지팡이 친필 법문집 등 각종 유품들이 전시된다. 전시관은 또 성철스님의 탄생, 출가, 열반에 이르는 수행의 발자취를 설명하는 '기대' '수행' '이해' '깨달음' 등 4개의 공간들로 이뤄진다.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